

펠리칸 브리프(Pelican Brief, 1993)

-“환경보호는 필요없다” 양심을 저버린 정치와 법,
그리고 돈의 결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송재철



존 그리섬의 법률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제목 “펠리칸 브리프”는 뉴올리언스에 있는 툴레인 법과대학원생인 여주인공이 대법관 암살사건의 배후를 암시하는 소송사건을 요약하여 교수에게 보여주었던 리포트를 일컫는다. 즉 “펠리칸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일련의 소송사건의 개요 및 이슈, 법원의 판결과 그 이유”를 기술한 것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미국 로스쿨 학생들이 판례를 조사하여 요약한 형식을 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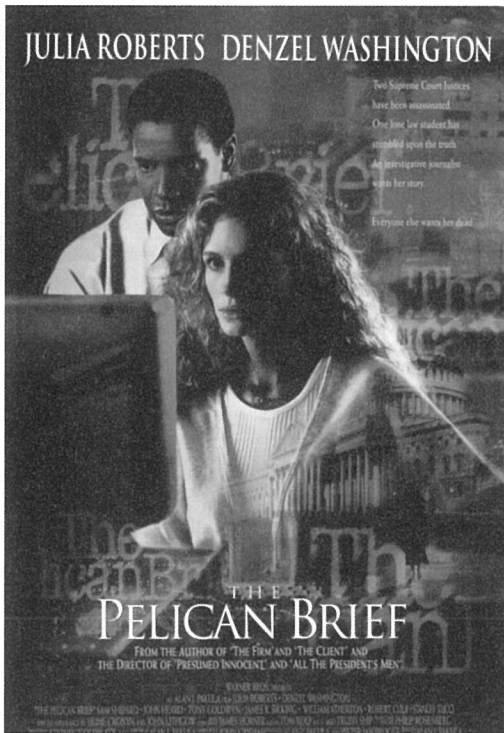
이 영화의 각본을 쓰고 제작까지 맡은 스티븐의 대가 알렌 파쿨라 감독은 남자 주인공으로 지성적인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을 그랜섬 기자로 캐스팅하여, 법대생 여주인공 “줄리아 로버츠(극중 다비 쇼)”와의 동지애를 부각시킴으로써 관객 묘미를 더하고 있다.

뉴올리언스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기에 주명 루이지애나와 같이 프랑스 어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제목의 ‘펠리칸’이 주의 별명이다.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미 연방대법원 청사 밖에는 원로대법관인 로젠버그가 내린 일련의 진보적 판결에 대한 항의시위가 연일 이어진다. 당국이 그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였음에도 로젠버그 대법관은 경호원과 함께 피살된다. 그런데 아무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다른 대법관도 같은 날 밤 성인영화관에서 피살되는 일이 발생한다. 두 명의 대법관이 거의 동시에 암살되자 대통령은 FBI 국장에게 사건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명하는 한편 새 대법관 후보의 인선에 착수한다.

한편 뉴올리언스 소재 툴레인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켈라헌 교수는 그가 20년 전 재판연구관으로서 모시던 로젠버그 대법관의 죽음에 크게 상심한다. 여제자 다비 쇼는 의견상 공통점이 없어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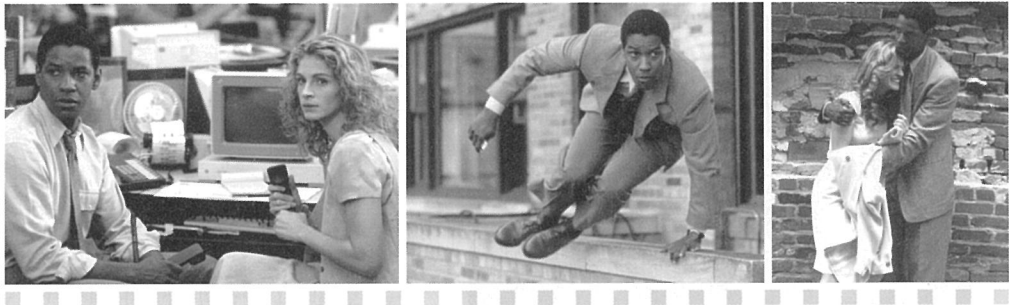


는 두 대법관의 암살 뒤에 음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각종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도서관의 법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두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했던 사건들을 파헤치던 중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하고 이를 정리하여 켈라헌 교수에게 보여준다. 켈라헌 교수는 로젠버그 장례식 참석차 워싱턴에 들른 길에 수사에 참고하라며 FBI 법률자문관으로 있는 법대 동창에게 이 보고서를 건네준다.

그런데 뉴올리언스로 돌아온 어느 날 다비쇼와 연인 관계였던 켈라헌이 자동차 폭발사고로 죽고, 다비는 계속 피한의 추적을 받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것이 자기가 조사하여 연인이자 법학과 교수인 켈라헌에게 보여주었던 '펠리칸 브리프' 때문임을 알게 된다. 펠리칸 브리프는 권력 핵심부가 암살사건의 배후임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를 본

사람은 모두 위험인물로서 제거대상이 된 것이다.(뉴올리언스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거리, 다비 쇼가 쫓기던 구시가지 '프렌치 퀴터'에 있는 부르봉[또는 버번] 스트리트는 밤만 되면 이 영화에 서처럼 붐비고 흥청거린다. 특히 2월의 사육제 '마디 그라(Mardi Gras)' 때 최고 절정을 이룬다.) 바로 그 무렵 워싱턴의 범조 출입기자로 명성을 날리는 그랜섬 기사는 대법관의 암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사무실에서 보았다는 어느 젊은 변호사의 전화를 받는다. 또한 점점 추적이 조여들어 위협을 느낀 다비도 그랜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한다. 그녀는 이번 사건에 백악관이 관련된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의 거액 기부자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한편 틀레인 대학 구내에서 거행된 친구 켈라헌 교수의 장례식에 참석한 FBI 자문관은 뉴올리언스의 유원지 'Riverwalk'에서 다비 쇼를 만나기로 했으나 이 사실이 암살범에게 노출되어 피살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다비쇼는 약속장소에서 켈라헌 교수의 친구를 만나 FBI의 보호를 받을 작정이었으나 오히려 변장한 암살범과 만나게 되는데, 다행히 이러한 사실을 눈치 채고 다비 쇼를 감시 보호하고 있던 특수기관이 암살범을 살해한다.



더 이상 믿을 곳이 없게 된 다비 쇼는 제 3의 장소인 뉴욕으로 피신하여 그랜섬 기사를 부른다. 각자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엄청난 음모를 재구성하는데, “남부의 석유업자가 석유채굴을 위해 펠리칸 서식지를 개발하려하자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다. 석유업자는 거대 로펌을 앞세워 뉴올리언즈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3~4년 내에 연방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하려면 현재의 대법관 중 환경보호론자는 배제되어야 하며, 거액의 선거자금에 발목이 잡힌 대통령의 대법관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러나 그랜섬 기자가 이 사실을 기사화하자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했다. 그랜섬과 다비 쇼 두 사람은 수상쩍은 전화를 걸어 온 변호사가 펠리칸 사건을 취급했던 워싱턴의 법률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직접 만나고자 하나 그는 이미 자살한 상태였다. 남편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긴 변호사의 부인이 그랜섬에게 남편의 은행 비밀금고 열쇠를 건네고, 여기서 물증을 확보한 그들은 사건 전모를 폭로하는 특종기사를 작성한다. 그리고 다비 쇼는 그랜섬 기자와 FBI 국장의 협상으로 한 점으로 피신한다.

거대한 개발사업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파괴되는 환경은 그들이 올린 엄청난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를 알면서도 사악한 결탁은 계속되고, 또 이를 막기위한 처절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

